

*성함 : 권OO

*합격환 시험 : 2019년 서울시 일반행정직

1. 시험 지원 동기

취업 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자소서 몇 천자를 쓰는 것이 큰 짐이라 느껴졌고, 해놓은 대외활동도 없고 학점도 좋은 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공무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공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무원은 박봉이지만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편견과 달리 꽤 할 일이 많아보였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결코 없다는 걸 되뇌며 공무원 시험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시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높다는 점도 제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게 공부량 대비 성적이 잘 나와서 앉아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반 몇 개월간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습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현장강의만 듣고 집에 오는 생활을 3-4달 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해의 1월부터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양해를 구하며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국가직 시험(2019.04.06.) 약 2달 전인 2월 중순부터는 학원에 일찍 와서 마지막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끝나고 집 근처의 스터디 카페에 가서 늦게까지도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습을 해봤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국어: 고등학생 때부터 국어가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느껴져 왔기에 처음에는 국어에 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갑자기 외우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춤법도 국립국어원과 표준국어대사전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어느 장단에 맞춰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선생님께서 견해가 다른 이유를 알려주시고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알려주셔서 그 부분의 지식도 얻어 가고 혼란도 덜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어휘나 문법 등은 수첩에 적고 학원에 오며가며 대중교통에서 틈틈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필수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만 외웠는데 기출, 모의고사 등에서 실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해 부분은 수능 때부터 저의 국어 점수를 떨어뜨리는 부분이었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독해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으로 치면 문학, 비문학 모두 평이한 수준이었기에 독해에 어려움을 겪던 저도 그 부분은 덜 신경 쓰게 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대신 독해에서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현대 소설은 내용을 알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기에 필수 작품에 대한 개략적 암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수첩에 적어서 시간 날 때마다 가볍게 머리에 새겼습니다.

영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시험의 영어는 처음 보는 유형이라 처음부터 점수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관용어, 생활영어를 포함한 방대한 범위의 어휘와 난도 높은 문법 문제를 보고 쉽사리 의욕이 생기지 않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됐을 때 날을 잡고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어 과목 수업을 듣는 날 선생님께서 강조하시고 자세히 설명해주신

문법 위주로 새벽까지 영어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틀을 잡고 나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법부터 먼저 잡고 나니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데에 재미를 느끼고 다른 영역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더욱 큰 폭으로 올리고 빨리 백 점을 받고 싶었지만 오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를 믿고 조금해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롭게 접하는 분야에서 할 일이 많을 때 조금해지면 더욱 일이 느리게 끝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단어 암기/문법-관용, 생활영어 암기/독해/문법 심화 이렇게 단계적으로 훈련해나갔습니다. 기본 단어 암기는 중요해서 절대 잊으면 안되지만 심화 어휘 암기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께서 강조해주신 거 수업시간에 듣고 귀가할 때 한 번만 훑어도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제가 영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점수 올리기 위해 너무 조금해졌다면 점점 흥미가 떨어져서 점수를 올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사: 한국사는 외울 양이 워낙 많아서 4-5개월 동안은 5-60점 정도였고 그마저도 확신을 가지고 풀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본서를 읽는다고 읽는데도, 기출 문제 풀이 수업을 듣는다고 듣는데도 제가 스스로 외우려고 뇌에 자극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민주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수첩에 자주 틀리는 부분, 선생님께서 강조하시고 기출에 많이 나와서 완벽히 알아야 하는 부분을 외워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진 후에는 만점 방지용 문제를 풀 때도 알면 도움이 되며 읽으면 재미있는 지식들도 적어 한국사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조민주 선생님께서 수업 때 판서해주시는 걸 노트에 적고 들고 다니며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저자인 선우빈 선생님의 현장 특강에도 가끔 가봤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사가 좋아져서 공부하다가 쉬고 싶을 때 박물관이나 유적을 다니며 환기하고 한국사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직과 서울시 하나씩 틀렸습니다.

행정학: 한국사와 더불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행정학은 특히나 처음 접하는 학문이었기에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우선순위에 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과목 점수가 오를 때에도 행정학 점수는 여전히 반타작이고 점수를 보니 더욱 공부하기 싫었던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수업은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비해 복습이 거의 없다가피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국가직 시험 보기 두 달 전 즈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행정학에 엄청난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쉬면서도 핸드폰 화면 밝기를 최대한 줄인 채 음악 듣듯이 최옥진 선생님의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충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파트는 기본 심화 수업이나 심화문제 풀이 강의로 골라서 들었습니다. 통원하면서도 앞서 말했듯 강의를 들으며 책을 봤습니다. 물론 행정학에 시간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다른 과목도 적어도 하루에 기출 하나 정도는 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과적인 점수는 나쁘지 않았으나 공부할 때의 압박감을 생각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든 어차피 할 공부니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최옥진 선생님께서 수업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친절하시고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으셔서 그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시고 제가 저를 믿는 것보다도 더 저를 믿어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 제가 문과여서 사회탐구과목으로 다 접했던 과목들이라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회문화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과목인데 심현보 선생님께서 여러 재미있는 예시들을 말씀 해주시고 부드러운 수업 분위기에서 강의해주셨기에 개념이 더 쪽쪽 들어왔습니다. 법과 정치는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암기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 주셔서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박태천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기본심화 강의 때 해주신 판서 내용을 제 노트에 다 적고 그걸로 틀만 잡았는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단권화가 비교적 쉽게 이뤄진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형 심화 문제 풀이 수업에서는 기출 유형이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푼 문제들이 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3. 영어집중관리반

어휘와 문법 수업 모두 좋았습니다.

우선 어휘 수업에서는 선생님께서 단어를 단순 암기식으로 주입하신다기보다 어원부터 말씀 해주시고 그 어원과 관련된 유의어, 반의어 등 광범위하게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기억에 남을 만한 유머를 섞어서 알려주셨기에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선생님만의 암기법이 떠올라 훨씬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땐 할당할지 몰라도 기억에 남기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문법도 선생님께서 만드신 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10대 구문은 영어에 있어 평생 도움이 될 문법서일 듯합니다. 그 책으로 처음에 문법을 탄탄히 공부했기에 안정적인 영어 접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4. 종로스파르타 장점

우선, 붐비지 않는 강의실, 자습실과 조용한 학습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량진을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더욱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제게 큰 자극이 됐습니다. 사실 잠이 많고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이라 처음 6개월 정도는 정시에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자습실에서 시간 재고 풀고 문제 풀이하니 그 과목을 수업하는 날이 아니어도 자연스레 여러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매일 모의고사마다 석차가 붙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도 처음엔 꼴등하던 내 등수가 올라가는 걸 보며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기도 하고 그걸 고려하더라도 학원 직원 분들께서 수강생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는 것이 잘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상담을 하면 진지한 자세지만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것 아닌가 했지만 그게 제 내면의 단단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경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5. 슬럼프 극복 방법

슬럼프는 국가직에 2점 차이로 떨어졌을 때 왔었습니다. 국가직을 볼 때는 처음으로 시작한 지 8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겉으로는 기대 안한다고 했지만 점점 성적도 오르고 저 스스로도 전보다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짐을 느꼈기에 은연중에 기대를 했었나 봅니다. 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직 직전 약 2개월 동안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였기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떨어진 거면 불기 위해서는 얼마나 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자꾸 공부를 오래하게 될 경우의 가정 상황이 떠올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단 움직이면 그런 잡념이 사라지기도 했기에 매일 하던 루틴을 수행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당장은 공부가 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청계천 쪽이나 탐골공원 쪽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런 저런 풍경을 보며 이어폰으로 강의 동영상을 들으면 어느새 강의 내용이 살짝씩 들려 막간을 이용한 지식 쌓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라 편의점이나 근처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거나 집에 돌아올 때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했습니다. 다들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6. 면접시험 준비 방법

노량진의 학원에 다니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 실전 코칭이라고 수강생들 앞에서 실제 면접처럼 선생님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땐 꼭 손들고 참여했습니다. 혼자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집에서 혼자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학원에서 해결하고 간다는 마음, 실제 면접에서도 매우 떨릴 테니 미리 겪어보자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5분 스피치가 있어서 5분 스피치만 따로 하는 스터디도 하나 들어가서 3주 전부터 주 2회 만나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서 거울 보며 연습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든 여러 사람 앞에서 입이라도 열어보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7.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수험 기간 동안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느라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비쳤는데 가족이든 친구든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주고 잘 먹고 다니라고 챙겨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나지 않음에도 연락을 계속해주는 것부터가 큰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험기간 동안 가장 많이 마주했던 학원 과장님들,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조언과 격려, 자극이 모두 제 합격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면 최대한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공부는 '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해서 그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SNS에 떠오르는 맛집을 탐방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SNS를 보면서 한 번, 맛집을 찾아가며 한 번, 갔다온 후의 후유증 한 번 등의 공부 방해 생각을 하니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워서 올해 1월부터는 인스타그램 어플을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타임(앱 사용 제한)을 설정해서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요인은 원천 봉쇄했습니다. '한 번 허용'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서울시 시험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자는 저만의 다짐을 했고 지켰습니다. 자율적인 통제가 어렵다면 이렇게 외부적 장치를 통한 제한

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나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오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르고 있는 중이기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 불안하다면 선생님들께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중에 힘든 때가 찾아온다면 나만의 작은 보상을 간간히 해주세요. 저처럼 산책하는 것이나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안전한 보도에서 음악 들으며 걷기를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별 것 아닌데 수험기간 저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우선 열심히 하시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본인을 응원해주세요. 자타공인 베프이인 저도 해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